

광주시 “금융 공공기관 취업문 열어드려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청년들의 금융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전남지역 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행사를 30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광주시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주공공사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광주전남지역 15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앞서 지난 4월15일 광주시와 금융공공기관 간 체결한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30일 시청 시민홀서 ‘광주·전남 공공기관 합동 취업멘토링’ 개최
한국은행·금감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공공기관 참여
현직자 1:1 멘토링, 자기소개서·면접 전략 등 실전 노하우 제공

취업 장벽이 높은 금융공공기관의 기 관별 채용 조건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지역 청년들의 도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기관의 현직 금융맨이 멘토로 직접 나서 1:1 맞춤형 상담(기관당 약 15분)을 진행한다. 취업 특강, 청년고용정책 안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1 컨설팅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되는 취업 특강에서는 커리어하이 공동대표인 박철오 멘토가 ‘금융공공기관 취업 면접, 무엇을 준비할까?’를 주제로 자

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면접 전략 등 실전 팁을 전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인재의 취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사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취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숙 교육청장은 “광주 청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및



출생 취업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고향 사랑 마음 모아 ‘유기견 입양센터’ 조성

30일 개소, 유기견 보호공간·입양상담실 등 갖춰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한 성금을 활용해 광주지역 최초로 조성한 ‘유기견 입양센터’가 오는 30일 동구 불로동(33-4)에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유기견 입양센터’는 입양 중심의 생명 존중 실천 공간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통해 운영되는 최초의 유기 동물 보호·입양 연계 모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동구는 지역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기동물 구조·보호의 현실적 한계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넓고자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에 모금된 약 3억 9천만원의 들여 센터를 조성했다.

유기 동물의 높은 포화율, 인도적 처리 등 광주광역시 유기 동물 보호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입양 기회가 낮은 유기 동물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 차별화된 점이다.

센터는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유기견 보호공간, 교감 체험 공간, 놀이터가 있고 2층에는 입양상담실, 반려교육실, 휴게실 등이 자리잡았다. 이곳에서는 입양 전 임시 돌봄부터 건강검진, 반려 교육, 입양 연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존 보호소에서 장기 보호되던 유기견 중 입양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집중 수용하게 되며, 민간 단체의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은 반려동물 복지와 국제 긴급구호 분야에서 활동해 온 민간단체 피스윈드코리아(Peace Winds Korea)가 맡는다.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고향남세’ 기부를 기반으로 유기견 안락사 제로화를 실현한 ‘피스윈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오철수 기자

북구, 수재민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 이어져... 의연물품 전달 본격화

지금까지 (사)한국나눔연맹, 지역 기업 등 각계에서 1억 원 상당의 의연 물품 모어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의연물품을 본격적으로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북구는 지난 22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추진 중인 ‘긴급 의연금품 자율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물품을 수해 가구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모금 시작 당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으로부터 ▲이불 500채 ▲라면

1,000박스 ▲생수 10,000개 등 약 6,5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기탁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기업과 단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약 1억 원 규모의 의연 물품이 모였다.

북구는 지난 28일 침수 피해가 컸던 6개 동(신안동, 중흥동, 용봉동, 운암2동, 건국동,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에 1차 배부를 완료했으며 오늘(29일)부터는 수해 피해 가구 720세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물품

전달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에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의연금품 기탁식이 두 차례 열렸다. 기탁식에는 문인 북구청장, 구제길 광주시 회복지킴이모임 회장, 회장을 비롯한 각 기업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기념 촬영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원피인스스티북개발이엠씨(대표 유기석)는 의연금 5천만 원을, ㈜코아스(대표 민경중, 노병규)는 1천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기탁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과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 후 문인 북구청장은 신안동과 건국동 일대 수해 가구를 직접 찾아 의연물품을 전달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조속한 복구를 약속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 피해 주민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신 모든 분들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청렴 소통 플랫폼 ‘서구청렴깨끗톡’을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서구청렴깨끗톡’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청렴 소통 창구로, 공직자와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채널은 ▲청렴 제도 안내 ▲부패·공익신고 절차 안내 ▲위법·부당 행

서구, 청렴을 묻고 답하다... ‘청렴깨끗톡’ 운영

누구나 참여하는 모바일 청렴 플랫폼... 상담·제보·정보제공까지

위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 전반에 대한 1:1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 플랫폼을 통해 청렴 카드뉴스, 웹툰, 영상 콘텐츠 등을 매일 정기적으로 제작·발송할 예정이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사회의 윤리를 넘어 공동

체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청렴깨끗톡이 누구나 쉽게 다가가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생활 속 청렴 실천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오는 하반기,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및 공익신고 제도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청렴 정책 전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대촌쌀을 이용한 떡볶이와 떡갈떡볶이 등 질서 보드를 활용한 불연 외장 칸막이 등을 우수 창업 아이디어로 상품화한다.

남구는 29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4.6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창업가의 우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로 했다”면서 “총 6개 사업 아이디어를 발

광주 남구, ‘떡볶이·떡갈떡볶이 외장 칸막이’ 상품화

굴해 업체당 1,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5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에 출품한 사업은 28개이다.

남구는 지난 18일 최종 심사를 개최, 업체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우수 사

업 아이디어 6개를 발굴했다.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수 사업은 지역특산 떡갈떡볶이를 비롯해 불연 외장 칸막이, 공예 굵즈 체임, 실리온 노즈 워크, 스마트 휠체어 테이블, 고급 수제 돈가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창

업 아이디어는 대촌쌀로 만든 떡볶이 떡갈떡볶이와 질서 보드 기반의 불연 외장 칸막이 개발 사업이다.

떡볶이 떡갈떡볶이는 광주김치타운에 사업장을 둔 월광주조 정인선 대표의 아이디어로, 유통기한이 짧은 떡갈떡볶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출에 최적화된 전통주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이다.

임재일 기자

광주시, 9월말까지 폭염대응대책 시행... 2억 투입

노숙인·폭방촌 등 취약계층 3만3000명에 맞춤형 응급물품 지원

광주시가 9월 말까지 두달간 폭염대응 대책을 시행,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숙인, 폭방주민, 취약노인, 건강 취약계층 등 총 3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응급물품 지원 등 본격적인 폭염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개월간 폭염대응기간으로 정하고, 2억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맞춤형 생존·건강유지 물품을 지원한다.

노숙인·폭방주민 1000여명에게는 생수(얼음물), 쿨매트, 냉찜질팩, 썬미쿨과 스, 삼계탕 킷킷, 손선풍기 등 긴급 생존

물품을 제공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만4000여명에게는 쿨수건, 쿨도시, 자외선 차단 마스크, 파우치백 등으로 구성된 냉방용품 세트를 전달한다.

건강 취약계층 1만8000명에게는 쿨도시, 양우산 등 폭염 극복 생활용품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한다.

특히, 노숙인과 폭방주민에게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무등노숙인쉼터 등과 협력해 무더위 쉼터 운영, 야간 순찰, 응급잠자리 제공 등 현장 보호활동도 강화한다. 사회복지관 20곳은 각 관할구역 내 비주거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직접 배부하며 안부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이승원 기자

